

편집자 오영수* - 『현대문학』 편집장 활동을 중심으로 -

나 보 령**

1. 지워진 편집자
2. 오영수와 김기오를 통해 본 『현대문학』의 창간 전사
3. '제작 기술자'로서의 편집자
4. 편집의 원천으로서의 독자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오영수의 『현대문학』 편집장 활동을 재구성한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첫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장 김기오와 오영수의 관계에 주목해 『현대문학』의 창간 전사를 재조명하였다. 그럼으로써 『현대문학』을 『문예』와 단선적으로 연결 지어온 기존의 접근법 대신, 언양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열망과 문화 운동의 명맥이라는 좀 더 장기적인 문화사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대문학』에서 오영수가 담당했던 편집과 제작의 기술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은 잡지의 체제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 원고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이 일을, 문학작품과 장르, 그리고 작가와 독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서 논했다. 또한 오영수의 미술적 재능과 디자인 부문의 경험들이 발휘된 영역으로 의미부여 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7377).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양대학 초빙부교수(seenlock@seoultech.ac.kr)

셋째, 『현대문학』을 매개로 오영수가 시도하였던 독자와의 소통에 주목하였다. 이를 1950년대 문예지 출판시장 속에서 『현대문학』의 독자층을 관리하고 확대하고자 했던 마케팅의 일종으로서 논했다. 이와 함께 잡지의 편집 과정을 소수의 발간 주체의 문학 이념 및 미적 취향을 전달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아닌, 독자와 소통하고 교섭하는 과정으로 재인식하고, 독자와 긴밀한 관계를 창출하려 했던 실천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서 재평가했다.

* 주요어: 오영수, 월간 현대문학, 조연현, 김기오, 언양

1. 지워진 편집자

오영수는 단편 「갯마을」, 「요람기」 등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이다. 토속적, 서정적 세계를 추구하는 작품들로 호평받으며, 한 때 국어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현대 소설가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소설에 앞서 동시와 시를 창작했던 시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그의 시들은 이순욱, 박태일에 의해 재조명될 수 있었다.¹⁾

그런데 오영수의 생애에는 소설과 시 창작 외에도, 눈길을 끄는 굵직한 이력이 있다. 바로 『현대문학』의 편집장 활동이다. 그는 이 잡지의 창간 과정부터 관여하였으며, 초대 편집장으로 11년간 재직하였다(1954.10~1966.2). 이 기간 그의 손을 거쳐 간 잡지는 134개 호에 달한다. 근현대 문인들 가운데 소설가나 시인,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잡지 편집에 종사하였던 작가 겸 편집자들은 여럿 있다. 하지만 오영수처럼 창간부터 시작해 이토록 오랜 기간 하나의 잡지, 그것도 월간 문예지를 편집한 이들은 드물다.

1) 이순욱,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 189~226쪽; 「광복기 시인 염주용의 매체 활동과 『문예신문』」, 『석당논총』 5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1~42쪽; 「광복기 부산지역 문학사회와 오영수」, 『작가 오영수가 들려주는 귀저래사』, 오영수문학관, 2015, 83~98쪽; 박태일, 「오영수의 광복기 미발굴 시 연구」, 『가라문화』 26,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14, 29~62쪽.

게다가 『현대문학』의 편집장을 맡게 된 일은 오영수의 작품 활동에도 뚜렷한 전환점이 되었다. 언양 태생으로 해방 후 부산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부산·경남 지역의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던 그는 『현대문학』의 창간을 준비하면서 삶과 작품 활동의 터전을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후 『현대문학』을 포함한 잡지들에 왕성하게 소설을 발표하였고,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작가로서 오영수의 전성기는 『현대문학』 편집 일과 함께 시작된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편집장으로서 오영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오영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작가 약력에서 편집장 이력을 거론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것이 『현대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편집자로서의 활동을 작가로서의 창작 활동에 비해 소홀히 여겨온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 근현대 잡지나 서적 등 문학 텍스트의 출판 과정에서 편집자라는 주체에 주목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 들어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 출판사 신문관을 중심으로 최남선의 번역과 편집 활동을 다룬 박진영, 소설가 이문구의 1960~70년대를 아우르는 문예지 편집자 시절을 연구한 야나가와 요스케를 들 수 있다.²⁾ 이 연구들은 다루는 시대와 인물은 다르지만, 모두 작가와 작품 위주의 문학 연구에서 지워진 편집자의 역할을 중요한 문학적, 문화적 실천으로 의미부여 했다는 점에서 오영수 연구에도 참조할 점이 많다.

오영수의 편집장 활동이 논의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현대문학』 연구가 주간 조연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잡지의 창간 배경 및 초기 성격을 논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연현이 편집을 맡았던 『문예』(1949.8~1954.3)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문협 정통파’로 호명되는 조연현, 김동리, 서정주 3인의 문학 이념과 정체성을 반영한 매체로서 『현대문학』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은 시각에서 오영수는 문협 정통파의 ‘주변’ 내지 ‘제2기’ 인물로,³⁾ 『현대문학』의 편집은 주간 조연현의 역량을 표출

2) 박진영, 「편집자의 탄생과 세계문학이라는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423~453쪽; 야나가와 요스케, 「창작과 편집: 이문구의 편집자 시절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307~349쪽.

하고 재생산한 영역으로 논의될 뿐이다.⁴⁾ 오영수의 존재는 지워지고, 『현대문학』의 역사에서 잊힌 셈이다.

하지만 조은정이 지적했듯이, 조연현 개인 혹은 문협 정통파라는 조직의 문학 노선을 대변하는 매체로서만 『현대문학』을 논의하는 방식은 이 잡지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만든다.⁵⁾ 그동안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조연현과 문협 정통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편집장 오영수에 주목했을 때 새롭게 드러나는 측면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 주목한 자료가 ‘편집후기’이다. 『현대문학』의 편집후기는 한국 문예지사에서 유례없는, 정기 발행의 월간 문예지를 편집하고 운영해나간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파라텍스트이다. 그중에서도 창간 초기의 경우, 편집후기의 단락 말미마다 글을 쓴 사람이 밝혀져 있어서,⁶⁾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했던 역할 및 분업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형식은 4·19혁명 이전에 발행된 호까지 지속되었는데, 이후로는 ‘편집실’ 또는 ‘편집부’라는 통일된 이름으로 후기가 나가는 방식으로 변해 편집후기를 쓰는 주체나, 편집부 내에서의 역할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잡지의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된 까닭인지 점차 편집후기의 분량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창간호부터 1960년 5월호까지의 편집후기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오영수가 남긴 자전적 기록 및 조연현의 회고도 참조할 것이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현대문학』의 창간 전사로서 오영수와

3) 김윤식, 「오영수 문학에 대하여: 문협 정통파와 그 주변의 사상」, 『현대문학』 426, 현대문학사, 1990.6, 417~418쪽.

4) 한형구, 「편집자-비평가로서 조연현의 생애와 문예지 『현대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9, 한국현대문학회, 2001, 57~88쪽; 임영봉, 「전후 한국문단의 재건과 권위의 창출 방식: 『현대문학』의 기원과 담론실천 양상에 대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05, 38, 44쪽; 김한식, 「동인에서 문단으로: 『현대문학』과 조연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61, 겨레어문학회, 2018, 101쪽.

5) 조은정, 「1950년대 문학장의 재형성과 『현대문학』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4쪽.

6) 조연현은 趙, 오영수는 吳, 김구용은 丘庸, 임상순은 任, 박재삼은 朴, 김수명은 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장 김기오의 언양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관계를 살펴 보고, 그 교류의 산물로서 『현대문학』을 재조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현대문학』의 편집과 제작의 기술적 측면에서 오영수가 담당했던 역할을 그의 미술적 재능과 연관 지어 논할 것이다. 4장에서는 잡지를 매개로 독자와 소통하고, 더 나아가 독자를 편집의 중요한 원천으로 삼았던 오영수의 편집자로서의 면모를 주간 조연현과 비교하며 논하는 한편, 1950년대 출판시장의 흐름 속에서 의미부여 할 것이다.

2. 오영수와 김기오를 통해 본 『현대문학』의 창간 전사

『현대문학』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창간한 문예지이다. 이 잡지가 현재까지 매월 결호 없이 발간되는 과정에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현 미래엔)의 경제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한교과서주식회사와 『현대문학』을 매개한 존재가 다름 아닌 오영수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 배경에는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장이자, 언양 출신의 문화운동가였던 김기오와 오영수 사이의 오랜 인연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영수의 언양공립보통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는 언양에서 보낸 유년 시절에 관해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그 가운데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언양의 향토적인 자연 풍경과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그린 「요람기」이다. 그러나 실상 다른 글들에 훨씬 편만해 있는 것은 소년의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했던 계급적, 문화적 빈곤과 그로 인한 깊은 절망과 우울의 정서이다. 몰락한 양반 계급의 후손이자, 생활력이 부족한 부친을 둔 그의 집안은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하였다.⁷⁾ 어머니의 삶바느질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이었던 만큼 보통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그에게는 힘겨운 일이었다.⁸⁾

7) 오영수, 「낙향산고」(유고), 『현대문학』 425, 현대문학사, 1990.5, 115~116쪽.

8) 오영수, 「고향에 있을 무렵」, 『오영수대표작선집』 7, 동림출판사, 1974, 243쪽.

그 같은 처지의 오영수에게 도움을 준 존재가 바로 김기오였다. 1921년 언양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하였던 그는 오영수에게 신문 배달과 수급 등의 업무를 맡겨 수업료를 치르고, 가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⁹⁾ 오영수의 보통학교 교육은 김기오 덕으로 지속되었던 셈인데, 그에 따라 김기오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1926년 양산으로 피신하게 되자, 오영수의 학력도 언양공보 졸업(1926.3)으로 단절되고 만다. 당장 김기오의 후원 없이 그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편, 이 시절 김기오는 오영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언양청년회를 중심으로 언양소년회를 조직하고(1923.10), 노동야학 등의 계몽운동과 청년운동을 벌여나갔다. 또한 1927년부터는 신간회 지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¹⁰⁾ 오영수의 회고에 따르면, 여기에는 김기오 외에도 와세다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의 정인섭, 오영수의 종숙으로 고베상고를 졸업한 오위영, 그리고 게이오대학교 상과와 세이소쿠 영어학교를 다녔던 사회주의자 신학업 등이 관여해 있었다. 모두 오영수와 같은 언양공보 졸업생으로, 그의 언양 시절 회고에서 언급되는 G선배, O씨, S씨, K씨는 이들을 말한다.¹¹⁾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언양우체국에서 일했던 오영수는 비록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재향 선배들이 주도하는 이 같은 소년·청년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적 분위기와 접촉할 수 있었다. 김종육에 따르면, 당시 언양 소년단(언양소년회)은 그중에서도 동시(동요) 창작을 조직적으로 장려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 이는 정인섭(언양), 신고송(언양), 서덕출(울산) 등 일찍부터 아동문학가를 여럿 배출했던 지역적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문화적 욕망은 강렬했으나, “동무에게서 빌린 『어린이』 잡지”¹³⁾를

9) 오영수, 「낙향산고」(유고), 『현대문학』 425, 현대문학사, 1990.5, 114쪽.

10) 「우석 김기오 연보」, 『울주문화』 13, 울주문화원, 2014, 22~23쪽.

11) 오영수, 「고향에 있을 무렵」, 『오영수대표작선집』 7, 동림출판사, 1974, 243쪽. 식민지 시기 언양의 소년·청년운동과 관련해서는, 이병길, 「언양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동개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김용 외, 『울산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을 밝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기록집』, 울산광역시교육청, 2020, 155~169쪽 참조.

12) 김종육, 「오영수와 아나키즘」, 『구보학보』 10, 구보학회, 2014, 162쪽.

뒤적이는 것 외에는, 이를 해소할 길 없는 메마른 환경에서 자라온 오영수는 이곳에서 동시 습작을 하는 등의 문학 공부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27~1930년 무렵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독자 문예란에 여러 편의 동시를 발표하였다.¹⁴⁾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 초반에 쓴 이 시들 가운데는 「도토리밥」, 「종놈」처럼 비판적인 계급의식이 읽히는 시들도 있다. 개인적인 가난과 불우에 더해 언양소년단의 사상적 분위기, 그리고 신고송, 서덕출과 같은 현실주의적 아동문학의 작품 경향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의 동시는 다른 언양 출신들에 비해 빈번하게 게재되었고, 윤복진에 의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¹⁵⁾

주목할 점은 오영수 문학의 출발점인 언양 시절의 동시 창작 역시 넓게 봐서는 김기오의 영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오영수가 소속되어 동시를 발표한 언양소년단은 김기오가 조직하고, 단장으로 활동한 단체였다. 또한 김기오는 1926년 『조선일보』 언양지국의 기자로 활동하고, 울산기자단을 창립하는 등의 활발한 언론 활동을 벌였다.¹⁶⁾ 그와 같은 김기오의 언론계 인프라가 이 시절 오영수를 비롯한 언양 출신들의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신문지면에 발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영수가 문학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김기오는 간접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한편, 일제의 탄압을 피해 양산에서 서울로 도피한 김기오는 동대문 서에 구금되어 1년간 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고학당 인쇄소를 거쳐 1936년 대한

13) 오영수, 「고향에 있을 무렵」, 『오영수대표작선집』 7, 동림출판사, 1974, 239쪽.

14) 그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7편의 동시·동요를 발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여기에 더해 1930년 언양 출신의 필명 ‘오파침(吳波枕)’, ‘오석범(吳夕峯)’으로 게재된 10편의 시들 역시 오영수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병길에 따르면, 오영수가 필명을 사용한 이유는 언양소년단원이었던 동생 오호근의 ‘언양격문사건’(1930.1.28)으로 인한 일제의 탄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1931년 오영수가 도일한 것 역시 언양소년단원이 주도한 일련의 독립운동으로 인한 검거와 탄압을 피한 탈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이병길, 「언양·울산 소년들 문학운동을 하다: 일제 식민시대 언양·울산지역 소년운동사(19)」, 『울산저널』, 2022.12.28). 해방 이전 오영수의 동시와 관련한 논의로는 김시민, 「오영수 동시에 대하여」, 『문학울산』 23, 시사랑 울산사랑, 2017, 78~89쪽.

15) 윤복진, 「3신문의 정월 동요단 만평(3)」, 『조선일보』, 1930.2.5; 「3신문의 정월 동요단 만평(6)」, 『조선일보』, 1930.2.8.

16) 「우석 김기오 연보」, 『울주문화』 13, 울주문화원, 2014, 22쪽.

교과서주식회사의 전신인 문화당 출판사를 창설하였다. 이곳은 효제동에 위치한 양철 지붕으로 된 허름한 판잣집 공장이었다.¹⁷⁾ 문영에 따르면, 이 시절 오영수는 김기오를 만나러 가끔 서울을 찾았다고 한다.¹⁸⁾ 둘의 사이가 다시 한 번 가까워진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이다. 전시에 김기오는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부산사무소를 개설(1950.11)한 데 이어 부산공장을 신축하였다(1952.3).¹⁹⁾ 해방 후부터 부산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오영수는 전시에 서울에서 피난 온 문인들과 어울리며 『문예』 등에 활발하게 소설을 발표하였던 한편, 김기오와의 교제를 이어나갔다.²⁰⁾ 그 결과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첫 번째 단편집 『머루』(문화당, 1954)를 김기오의 문화당에서 출판할 수 있었다.

오영수에 의하면, 김기오는 한 번 맺어진 관계는 결코 끊는 일이 없는, 두터운 인정과 의리가 있는 인물이었다.²¹⁾ 그와 같은 김기오의 영향 속에서 쌓여온 둘의 오랜 관계가 오영수의 삶에 또 한 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현대문학』의 창간이다. 오영수의 회고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간 김기오는 그에게 계속 상경을 종용하였다고 한다. 망설이던 그를 급기야 앞서 김기오와 함께 신간회 활동을 했던 오위영(당시 서울 신탁은행장)이 불러들였다. 해방기에 『아동교육』, 『조선교육』 등의 교육잡지를 발간했던 경험이 있는 김기오는 이 때 오영수에게 의미 있는 출판 사업에 관해 의견을 물었으며, 오영수는 『문예』의 뒤를 잇는 문예지 사업을 제안하였다고 한다.²²⁾ 『문예』의 폐간을 심려했던 김기오 역시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²³⁾

이후 오영수는 새롭게 만들 잡지의 주간 직에 조연현을 초빙하였고, 그와 함께 본격적인 창간 준비에 돌입하였다. 1954년 10월, 드디어 대한교과서주

17) 요산재, 「고 김기오사장의 편모」, 『사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우회, 1962.11, 3쪽.

18) 문영, 「우석과 난계 오영수」, 『울주문화』 13, 울주문화원, 2014, 137쪽.

19) 「우석 김기오 연보」, 『울주문화』 13, 울주문화원, 2014, 22쪽.

20) 문영, 앞의 글, 138쪽.

21) 오영수, 「인간 김기오」, 『사우』 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우회, 1962.11, 5쪽.

22) 오영수, 「낙향산고」(유고), 『현대문학』 425, 현대문학사, 1990.5, 140~141쪽.

23) 오영수, 「추도 김기오」, 『현대문학』 6, 현대문학사, 1955.6, 117쪽.

식회사 건물 한 모퉁이에 현대문학사가 창립되었다. 사장 김기오, 주간 조연현, 편집장 오영수, 그리고 편집부원으로는 임상순, 김구용이 참여하였다. 당시 오영수가 소설 경력 면으로는 신인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후 유일한 월간 문예지의 편집장 직에 부임한 것은 김기오의 자본을 유지해 『현대문학』을 창간한 공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언급했듯, 소설가로서 오영수의 왕성한 활동은 『현대문학』의 편집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오영수가 문학적 전성기를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김기오의 영향이 컸던 셈이다.

상기한 오영수와 김기오와 관계를 통해 본 『현대문학』의 창간 전사는 기존에 자주 인용되어왔던 조연현의 회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조연현은 처음 오영수의 매개로 월간지 사업을 구상 중인 김기오를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예지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비전에 관심을 가진 김기오가 창간을 결심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일체를 그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이 논문에서 조연현의 서사 대신 오영수의 서사를 비중 있게 다룬 까닭은, 둘 중 누구의 역할이 『현대문학』의 창간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따지기 위함은 아니다.²⁵⁾ 대신, 『현대문학』을 조연현과 문협 정통파가 중심이 되었던 『문예』의 후신 격으로만 논의해온 기존의 단선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식민지 시기 언양 일대에서부터 지속되어왔던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열망과 문화운동의 명맥이라는 훨씬 장기적인 문화사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에서이다.

필자는 전시 피난수도 부산 문학장에서의 만남들이 낳은 문학적 성과에 대해 살핀 한 연구에서 전후 김기오가 잡지 출판 사업을 제안했을 때, 오영수가 전쟁 이전에 속해있던 부산·경남지역의 인적 네트워크가 아닌, 전 『문

24)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현대문학사, 1968, 147~155쪽.

25) 이는 오영수와 조연현 사이에서는 민감했던 문제로,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격화되었다. 조연현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공을 강조하였다면, 오영수는 사석에서 자신의 공을 강조하는 식으로 둘의 의견은 팽팽히 대립하였다. 오영수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정형남, 「향토에 문은 오영수의 문학과 생애」; 윤정규, 「오영수선생과의 만남」, 『울산문학』 19, 울산문인협회, 1992, 79, 132쪽.

예』의 편집인 조연현을 연결시켜주었던 것, 그리고 오영수가 생활의 터전을 옮기면서까지 『현대문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은 전시에 부산으로 피난했던 문인들과 오영수 사이의 긴밀했던 교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²⁶⁾

이 논문은 여기에 더해 『현대문학』의 창간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축적 되어왔던 오영수와 김기오의 오랜 인연 및 언양 지역 청년들의 문화 운동을 중요한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서 오영수라는 존재는 『현대문학』의 기원과 역사를 풍부하게 다시 쓸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제작 기술자'로서의 편집자

『현대문학』은 창간호부터 주간 조연현과 편집장 오영수의 2인 체제로 운영되었다.²⁷⁾ 일반적으로 주간과 편집장은 같은 개념인데, 두 직책으로 구분해놓은 셈이다. 이는 기존의 문예지들이 편집인 한 명만을 내세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참고로 1955년 5월호의 뒤표지에 실린 영문 발행정보에는 조연현이 Chief Editor, 오영수가 Editor로 표기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조연현이 편집장(주간), 오영수는 편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의 이름은 간기에도 항상 나란히 표기되었다. 이 체제는 조연현이 4·19 혁명의 여파로 표면적으로 주간에서 물러났던 기간(1960.6~1961.3)을 제외하고는 오영수가 편집장 직을 그만두기 전인 1966년 2월호까지 지속되었다.²⁸⁾ 잡지를 창간하는 과정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도 오영수의 직책이 주간만큼 분명하고,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26) 줄고, 「회우와 재편: 피난수도 부산 문학장의 조감도」, 『구보학보』 27, 구보학회, 2021, 31쪽.

27) 편집부원으로 임상순(1955.1~5), 김구용(1955.1~12), 박재삼(1956.1~1964.2), 김수명(1959.8~1966.1) 등이 있었으며, 편집부 외에도 취재부, 출판부(단행본 출판물 담당)가 있었다.

28) 김수명이 편집장을 맡은 기간(1966.3~1974.10)에는 간기에 주간의 이름만 표기되었다.

렇다면 편집장으로서 오영수가 담당했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현대문학』의 편집에 관한 조연현의 회고로부터 출발해보자. 그는 문예지 편집자의 역할을 ‘제작적인 기술자로서의 편집자’, ‘문화창조자로서의 편집자’, ‘상품생산자로서의 편집자’로 분류하면서, 자신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문화적 이념의 창조자라는 신념을 갖고, 『현대문학』을 편집해왔다고 했다. 이는 그가 “편집자라는 의식보다는 문학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앞서” 있었으며, “편집자로서의 나 자신보다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의 나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의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그는 문학과 편집이 완전히 분리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잡지 제작의 기술적, 상품적 측면과 관련된 편집 업무는 문학, 그리고 문화적 이념의 창조와는 상대적으로 덜 가까운 영역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 그 결과 그는 20년 가까이 편집자로 활동해왔지만, 해당 영역들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나는 아직도 활자의 호수도 잘 모르며 국판 1면에 활자의 대소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원고의 분량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더우기 시각적 효과나 체제의 조직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한 사람이다. 각종의 인쇄과정은 물론 면수와 부수에 따라 용지의 소요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제작상의 초보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전혀 백지다. 그러니까 제작적 기술자로서 나는 완전히 낙제인 것이다. 또한 잡지기업인으로서도 나는 전혀 부적당한 사람이다. 잡지도 하나의 상품이라면 독자의 요구와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어느 편이나 하면 나는 독자의 요구나 관심에 맞추는 방향보다는 독자에게 어떤 관심과 요구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쪽에 더 많이 열중되는 편이다.²⁹⁾

편집후기를 보더라도, 조연현은 잡지의 내용과 구성을 기획하고, 그에 맞는 필진을 섭외해 원고를 청탁하는 한편, 심사위원을 꾸려 신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집 기획이라든지, 집필진과 수록된 글에 대한 소개, 추천제도와 신인문학상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언제나 조연현의 후기에서만 언급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9) 조연현, 앞의 책, 1968, 228~229쪽.

반면, 조연현의 글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오영수의 역할은 조연현이 도외시한 나머지 영역들을 포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편집후기를 보면, 오영수는 수합된 원고의 교정·교열부터 시작해 잡지의 체제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 원고를 편집한 뒤 제작하는 일—장르별, 작품별 게재 순서 및 각각의 지면 안배와 컷 등의 위치를 결정해 조판하고 인쇄하여 제본하는 일 등—에 관해 주로 언급하였다. 요컨대, 조연현이 오늘날의 ‘기획편집자’의 역할을 맡았다면, 오영수는 원고와 편집, 그리고 제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편집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편집자’, ‘본문편집자’를 겸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³⁰⁾

이 업무들은 주간의 그것에 비해 결코 부차적이거나, 덜 중요하지 않았다. 우선 고려할 것은 절대적인 편집 양의 문제이다. 『현대문학』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월간 문예지였다. 비정기 간행이 흔했던 다른 문예지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원고를 편집한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1956년 12월 편집후기에서 오영수는, 지난 한 해 동안 본지에 120여 편의 시, 90여 편의 창작, 70여 편 내외의 평론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한국문단에서 유례없는 성과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³¹⁾ 이 숫자는 최종적으로 게재된 작품들만 합산한 것이고, 잡지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취급해야 했던 원고들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작업량은 몇 배 더 늘어난다.³²⁾

전쟁이 끝난 뒤 안정적으로 발행되는 문예지가 드물었던 데다, 매달 추천되는 신인들을 포함해 문인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 원고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수합된 원고들을 매월 적절하게 분배하고, 취사선택해 편집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오영수의 편집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은 교열과 조판이 완료되었으나, 잡지 전체의 분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호로 넘긴 원고들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인사이다.

30) 김학원, 『편집자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9, 26~31쪽.

31)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24, 현대문학사, 1956.12.

32) “매월 들어오는 원고는 본지의 계획에 의하여 청탁하는 이외의 각종의 고마운 기고가 있어 이를 합치면 지면에 소화할 수 있는 5, 6배의 원고가 들어온다. 이것이 몇달만 축적되어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원고가 산적된다.” 편집부, 「편집후기」, 『현대문학』 82, 현대문학사, 1961.10.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증면이다. 『현대문학』, 현대문학사는 창간호의 경우 국판 200면 안팎의 분량으로 출발하였으나, 1956년도엔 240면대, 1957년도엔 260면대로 증면하였다. 1960년에는 판매가를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면서 270-80면대로 증면하였으며, 이후로도 여러 번 증면을 감행하였다. 증면은 제작비용과 직결되어 있었고, 오영수에 의하면, 문예지로서는 초유인 1만 부 판매를 돌파했음에도 여전히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 재정 상태였지만,³³⁾ 매월 늘어가는 원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다른 잡지들 사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증면은 불가피했다.³⁴⁾

한편, 편집부원 박재삼이 지적하였듯, 단순히 많은 양의 작품을 실는 것만 아니라, 한정된 분량 안에서 잡지를 알차게 꾸미는 일, 즉 전반적인 구성의 질과 효율을 끌어올리는 문제야말로 편집 기술의 핵심에 해당했다.³⁵⁾ 특정 장르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되, 깊이 있는 글들로 지면을 구성하는 문제는 창간 초기부터 편집의 과제로 부상하였다.³⁶⁾

이 과정은 종종 장르들 간에 신경전을 초래하였다. 잡지의 전체 체제에서 각 장르를 어떤 순으로 배치하는가, 장르별로 얼마큼의 지면을 할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 장르의 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실제로 특정 장르를 소홀하게 취급한다거나, 지면 제공에 인색하다는 비판으로 인한 오영수의 고충은 창간 초기부터 빈번하게 드러난다.

33)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36, 현대문학사, 1957.12.

34) 일례로, 『문학예술』이 150면에서 210면으로 증면하자, 『현대문학』이 260면대로 증면하며 두 잡지가 경쟁을 벌였던 일화는 유명하다. 원응서, 「문학예술」,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20년』, 정음사, 1966, 178쪽.

35) 박, 「편집후기」, 『현대문학』 52, 현대문학사, 1959.4.

36) 창간호에 실린 평론에서 백철은 목차만 다채롭고, 내용 면에서는 깊이 있는 글을 찾기 힘든 당대 월간지에 만연한 편집경향을 그릇의 가짓수만 많을 뿐 정작 먹을 만한 반찬은 없는 “우리나라 재래식의 여관밥상”에 빗대며 비판하였다(백철, 「저널리즘과 문화성: 월간지의 편집경향에 대하여」, 『현대문학』 1, 현대문학사, 1955.1, 97쪽). 『현대문학』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월간지들의 편집 경향과 차별화되는 노선을 피하려 했음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편집에 대한 주문이라기보다 마구 강요다. 작가들은 그 데대한 시 같은 건 2단으로 하되 맨 끝에 처박어 두라고 우긴다. 그러나 시인들은 또 너절한 산문이 어데 그개 문학이나, 지면 낭비지! 시는 반드시 토프에 놓되 활자를 한호 높이라고 한다. 평론가들은 평론가대로 왈, 잡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응당 평론이 토프에 들어가야지, 하는가 하면 수필가들은 온 세상에 그렇게들 문견이 없어……○○○, 『문예춘추』는 보지도 못했군?고. 이렇게 풍운이 비상하고 보면 불혹안주(不惑安住)는 하시재(何時哉)―.³⁷⁾

가장 문제 시 되었던 장르는 시이다. 일단 시인의 수가 많고 자주 투고되었던 데다, 산문과 비교할 때 글자 수 대비 훨씬 많은 지면을 차지하였던 까닭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계적, 효율적으로만 처리할 수도 없었다. 오영수가 언급했듯, 매호 20편가량의 시를 게재해도 한 명의 시인에게 돌아가는 발표 기회는 한 해에 고작 한두 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⁸⁾ 이 점은 오영수 자신이 소설가 이전에 시인으로 활동하였던 만큼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요컨대, 장르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와 잡지를 읽는 독자 양쪽, 그리고 문예지 전체의 구성과 시각적 효과를 두루 고려해 조율할 수 있는 편집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오영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적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편집 기술을 개발하였다. 예컨대, 『현대문학』에는 여러 장르들 중에서도 매호 시, 소설, 평론이 빠짐없이 실렸는데, 목차에서는 주로 이 세 장르를 번갈아 가면서 앞쪽에 배치하였다. 세부적으로, 시의 경우 처음에는 가장 큰 활자를 사용해 전단으로 배치하였으나, 1958년 6월호의 ‘시 74인집 특집’에 이르러 활자 크기를 줄이고 2단 배치를 시도한 뒤, 1959년부터는 점차 2단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소설의 경우 초기에는 시보다 조금 작은 활자를 사용해 전단으로 편집하였으나, 1957년 9월호부터 2단 편집으로 바뀐다. 그에 따라 200매가 넘는 긴 분량의 작품들과 장편 연재도 꾸준히 실을 수 있게 되었

37)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8, 현대문학사, 1955.8.

38)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58, 현대문학사, 1959.10.

다. 또한 첫 페이지에 반드시 비중 있는 컷을 배치해 독자의 시선을 끌도록 한 것 역시 소설 부문 편집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다른 문예지들과 비교할 때 비중이 컸던 평론은 처음부터 2-3단으로 편집해 매호 빠짐없이 실리도록 했다. 그 외 수필이나 학예논문, 인터뷰, 좌담회 등의 경우 가장 작은 크기의 활자에, 3단 편집으로 고정해 다른 문학 장르들에 비해 지면의 할당은 적지만, 매호 다양한 필자 및 종류의 글들이 실리게 했다.

이밖에도 아세아재단에서 원조 받은 마카오에서 수입된 60근의 모조지로 인쇄용지를 바꾼다든가(1955.4, 1955.11), 최신식 윤전기를 주문해 인쇄의 질을 높인다든가(1956.9, 1956.11), 한자의 활자체를 현대적 감각의 신체로 바꾼다든가(1958.10), 표지화와 권두화, 컷을 매월 다른 화가에게 요청해 잡지에 실린 그림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등³⁹⁾ 편집과 제작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편집장으로서 오영수는 이 모든 업무들을 주관했으며, 좀 더 나은 편집을 연구하는 데 늘 골몰하였다.

경향각지에서 여러 가지로 문의의 글발을 받는다. 표지가 너무 얇느니, 그림이 어퍼니, 인쇄가 고르지 못하다느니, 전 모양으로 마카오 지를 사용할 수 없느냐느니—일일이 답을 내기는 번거롭고 여기에 한뭇음해서 답을 대신하겠다. 인쇄만은 불원 최신시설로 바뀌질 것이니 괄목의 비약이 있을 것을 단언한다. 그러나 용지문제는 지금 형편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⁴⁰⁾

연말 연시에다 공장시설의 확충정리—이런 관계로 해서 이번호는 예정보다 며칠 늦었다.

대신 다음호부터는 활자, 인쇄, 제본 모든 면에 있어서 점진적이긴 하나 쇄신을 보아갈 것이다.⁴¹⁾

39) 화가 문학진은 『현대문학』에 실리는 그림과 관련해 “매월 변화를 주어서 기대를 갖게 하는 효과적인 심리를 꾀한 것은 편집자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김환기, 문학진, 배렴, 서세옥, 유경채, 장우성, 「표지화가의 변」, 『현대문학』 100, 현대문학사, 1963.4, 33쪽.

40)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23, 현대문학사, 1956.11.

41)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38, 현대문학사, 1958.2.

창작도 10여편 정도는 게재하고 싶으나 항상 지면의 제약 때문에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좀 더 훌륭한 편집을 늘 연구 중이다.⁴²⁾

흥미로운 점은 『현대문학』 이전에 오영수는 잡지나 동인지 편집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전까지 그는 문단과 거리가 먼 환경에서 생활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여러 매체들을 중심으로 시를 발표하였으나, 잡지 편집에 관여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은 『현대문학』 이전에 『예술부락』이나 『문예』의 편집을 단독으로 맡았던 조연현과는 대조적이다.

그 대신 오영수가 미술 부문에 재능이 많고,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연양공보를 졸업한 뒤, 1931년부터 몇 차례 도일을 감행하며 고학을 이어나갔던 그는 최종적으로 도쿄국민예술원을 졸업하였는데(1939), 이곳에서 미술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시절 그는 도쿄의 한 실내장식사에 직공으로 취업해 배운 기술로 고향 인근에서 도장(塗裝) 일이나, 간판, 장식화 등을 그리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린 적도 있다. 일제 말기에 징용장이 나왔을 때도 필리핀 등 일본군의 점령 지구에 파견되어 선전 포스터를 그리는 요원 역할이었다.⁴³⁾ 해방 이후 부산의 경남공립여자중학교에서는 국어교사에 앞서 미술교사로 1~2년간 재직하면서,⁴⁴⁾ 김수현이 기획한 음악극의 무대 미술장치를 제작하거나,⁴⁵⁾ 김수돈의 시집 『소연가(召燕歌)』(문예신문사, 1947)⁴⁶⁾와 자신의 첫 번째 창작집 『머루』(문화당, 1954) 초판본의 장정을 직접 맡는 등 다양한 미술 부문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력은 문학 창작과는 무관한 까닭에 기존의 오영수 작가론에서는 의미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수준 높은 미술교육을 받거나, 전

42)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50, 현대문학사, 1959.2.

43) 다행히 그는 일광의 면서기로 부임해 징용을 피할 수 있었다. 오영수, 「고향에 있을 무렵」, 『오영수대표작선집』 7, 동림출판사, 1974, 249~250쪽.

44) 오영수, 이광복, 「나의 인생 나의 문학: 난계 오영수」(대담), 『월간문학』, 1967.7, 15쪽.

45) 김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101쪽;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77쪽 재인용.

46) 김종욱, 앞의 글, 169쪽.

문적인 화가들과 교류하며 창작 및 비평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일찍부터 오늘날의 시각디자인, 상업디자인에 가까운 분야에서 활약해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작가로서의 문학에 대한 이해에 더해,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의 남다른 미적 감각이 『현대문학』의 편집과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리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오영수의 편집후기에는 다른 편집자들에 비해 유독 손에 묻은 잉크 때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그의 작업이 말 그대로 잉크나 활자, 종이 등의 물질과 결부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현대문학』에서 담당했던 편집과 제작의 형식적, 기술적 측면은, ‘제작 기술자’라는 앞선 조연현의 표현처럼 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고, 그로 인해 기존의 문예지 연구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것은 문학작품과 장르, 작가와 독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인 동시에, 잡지매체의 내용은 물론 그 시각적 효과에 대한 예술적 안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편집자 오영수는 그와 같은 역량을 갖춘 존재로서 재평가해볼 수 있다.⁴⁸⁾

4. 편집의 원천으로서의 독자

『현대문학』에 실린 오영수의 편집후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영역은 바로 독자와의 소통이다. 창간호에 실린 편집후기에서 그는 “매달 거

47) 『현대문학』과 미술의 관계는 주로 표지화를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창간호부터 표지화 작업에 참여하였던 김환기와 조연현, 서정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김진희, 「한국 현대문학과 김환기 예술의 상호 관련성 연구」, 『한국문학연구』 6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0, 81~120쪽). 이 논문은 여기에 더해 문학과 미술을 전공하였던 편집장 오영수의 역할을 부각하고자 했다.

48) 오영수의 아들 오윤(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은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운동을 대표하는 판화가이다. 김지하의 시집 『오적』의 판화 삽화와 풀빛 출판사 『풀빛시선』의 표지화를 그리는 등 문학과도 인연이 깊다. 오영수의 장녀 오숙희(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도 미술 교사로 재직하며 화가로 활동하였다. 이재근, 「오영수 소설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7~58쪽.

르지 않고 25일 내로는 꼬박꼬박 내놓는 것만은 여기에 확약해둔다”고 언급하였다. 『현대문학』의 결호 없는 정기 발행과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문구인데, 이는 독자들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이어지는 글에서 그는 “본지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라”⁴⁹⁾고도 했다. 과연 창간호 이래 오영수는 자신의 편집후기의 많은 부분을 독자들이 보내온 의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답하는 공개 게시판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크게 신인추천제, 콘텐츠, 판매, 그리고 수용 및 기타 부문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한눈에 보아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의견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독자들의 소통 욕구가 매우 높았다는 뜻이다. 또한 『현대문학』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신인추천제 부문

- 투고가 심사자에게 잘 전달됐는지 문의 (1955.6, 1958.8)
- 심사가 끝난 원고의 반환 요청 (1955.10)
- 입선 및 낙선 여부 문의 (1956.1)

○ 콘텐츠 부문

- 창작 월평을 실어달라는 요청 (1956.1)
- 외국작품을 실어달라는 요청 (1958.7)
- 연재물을 줄이고 단물(單物)의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청 (1959.6, 1959.7)
- 시의 비중을 줄여달라는 요청 (1959.3, 1959.10)

○ 판매 부문

- 증쇄 요청 (1955.9, 1955.11, 1956.6, 1957.5 외 다수)
- 증쇄를 배책 받지 못한 데 대한 항의 (1957.11)
- 지방 책사에서 판매 가격을 임의로 인상한다는 제보 (1958.3)
- 총판(장안서림) 대신 본사에 직접 주문을 희망하는 요청 (1958.6, 1958.9)

49)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6, 현대문학사, 1955.6.

○ 수용 및 기타 부문

- 농촌 사정이 어려워 잡지를 구매할 수 없으니 낡은 책을 기부해달라는 요청 (1957.6)
- 대학 국문과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방학 전에 발간해달라는 요청 (1957.9)
- 지방의 문학씨클에 대한 원조 요청 (1958.12)
- U지방에서 『현대문학』지를 유통하는 ‘현문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 (1960.5)

신인추천제 부문부터 살펴보자. 추천제에 관한 내용은 조연현과 오영수의 편집후기에서 모두 언급되는데, 조연현의 경우 추천이 완료되어 등단한 신인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오영수는 응모를 희망하거나,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다. 이 때 후자는 주로 원고가 제대로 접수되어 선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입선 여부가 언제 결정되는지 등을 궁금해 했다. 오영수는 이들에게 투고된 작품들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규정에 기재된 사항 외에도 투고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였다.

추천응모원고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 여기에 한뭇음 해서 알려드린다. 보내온 원고는 일일이 원고접수장부에 기록을 하고 각 선자에게로 넘긴다. 그 점 안심하시라. 낙선원고반환은 규정에도 명시했듯이 누구라고 해서 또 사정여하로써 특별취급은 곤란하다. 워낙 많은 응모 원고를 취급하기 때문에 당락의 여부를 알려드리기도 사무상 곤란하다. 원고접수로부터 세 호가 나올 때까지 발표 내지 선자의 언급이 없을 때는 낙선으로 아시라. 또 선자는 원고를 끝까지 읽어주느냐 운운은 선자에게 실례가 된다. 선자는 어떻게 해서 우수한 신인을 발견해 낼까 하는데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라.⁵⁰⁾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이 업무는 실제로는 『현대문학』의 독자층을 관리하고 확대하는 문제와 맞닿은 영역이었다. 구독자 중 다수가 신인추천제를 통해

50)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44, 현대문학사, 1958.8.

등단을 꿈꾸는 문학청년들이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인 유경환(1957년 11월호 추천)은 꼬박 1년 반을 달마다 중순이 지나면 을지로4가의 장안서림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현대문학』을 사들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⁵¹⁾ 이들에게 신인추천제는 『현대문학』을 읽는 중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본다면, 등단을 준비하는 문학청년들을 관리하고, 추천제의 운영에 관해 신뢰감을 심어주었던 오영수의 업무는 출판시장에서 『현대문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종의 마케팅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⁵²⁾

다음으로 콘텐츠 부문이다. 콘텐츠 면에서는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할 뿐 아니라, 편집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면모도 발견된다. 일례로, 외국문학을 활발히 실었던 『문학예술』과 달리, 『현대문학』은 주로 한국의 고전문학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는데, 1958년 7월호의 경우 이례적으로 3편의 외국문학 번역이 실려 눈길을 끈다(제임스 서버 작, 이기석 역, 단편 「바늘 아홉 개」; T.S. 엘리엇 작, 이창배 역, 시극 「카테일파티」; 괴테 작, 이만성 역, 희곡 「파우스트」). 오영수의 편집후기를 참고해보면, 외국작품을 실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을 반영한 편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959년도에는 한꺼번에 3편의 장편이 연재되고 있었는데, 연재물 대신 단편을 많이 실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거듭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오영수는 추계호부터 단편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손소희의 『태양의 제곡』과 김용제의 『관화』 연재가 완료된 1959년 8월호 이후로는 기존에 연재 중이던 박경리의 『표류도』(1959.1~11)를 제외하고는 한동안 새로운 연재가 실리지 않았다. 다음 장편 연재는 1960년 4월에야 시작되었다(김말봉, 『이브의 후예』; 한말숙, 『하얀 도정』).

물론 독자들의 의견을 때맞춰 소개한다거나,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도 편집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들만 취사선택해 편집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처

51) 김병익, 「문단 데뷰」, 『동아일보』 1971.7.24; 유경환, 「'친정'집 같은 향수」, 『현대문학』 522, 현대문학사, 1998.6, 86쪽.

52) 처음에는 추천 응모자들과 원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오영수는 1962년 1월호부터는 소설 부문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되었다. 1962년 6월호에서 첫 신인을 추천한 이래 그는 조정래를 비롯해 총 24명의 신인을 추천하였고(2회 완료는 9명), 34회의 '소설추천기'를 게재하였다.

럼 보이게끔 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잡지 편집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신경을 썼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독자들의 충고와 제언에 귀 기울이고, 이를 편집에 반영하겠다는 언급은 오영수의 편집후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주 K씨 김천 H씨 그토록 본지를 아끼고 조금도 사심(邪心)없는 애정의 충고라고 믿고 본란을 통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귀의(貴意)를 살려보겠다.⁵³⁾

본지의 발전을 위한 애독자의 절실한 요청이 많다. 새해부터는 이 절실한 욕성을 되도록 반영시켜 보고도 싶다.⁵⁴⁾

애독자로부터 많은 글발과 건설적인 제언을 받았다. 모름지기 반영은 시켜왔으나 일일이 답을 못 드린 과오와 함께 삼가 새해의 청복을 빈다.⁵⁵⁾

이와 같은 면모는 주간 조연현의 편집후기에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일이 전무한 것과 대조적이다. 3장에서 인용하였듯, 조연현은 잡지 편집 면에서 독자의 요구나 관심에 맞추기보다 독자에게 어떤 관심과 요구를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는 잡지 편집을 근본적으로 “편집당사자의 교양과 견식에 의존”⁵⁶⁾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자, 혼자 하는 작곡과 같은 영역으로 설명하곤 했다.⁵⁷⁾

그런데 그동안 교양과 문화적 식견을 갖춘 편집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잡지들은 많았지만, 『현대문학』 만큼 지령이 길고 꾸준히 애독되며 고정 독자층이 확고했던 잡지가 드물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⁸⁾ 이것은 대

53)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18, 현대문학사, 1956.6.

54)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25, 현대문학사, 1957.1.

55)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49, 현대문학사, 1959.1.

56) 조연현, 「현대문학」, 한국문인협회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181쪽.

57) 조연현, 앞의 책, 1968, 154쪽.

58) 오태진, 「한국문단 지켜온 순수문예지」, 『조선일보』, 1984.12.25.

한교과서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조은정의 지적처럼 『현대문학』이 대한교과서주식회사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지만, 그것이 곧 출판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⁵⁹⁾

이봉범이 지적하였듯, 1950년대는 대부분의 신문, 잡지들이 독자 확보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문학을 선택했던 때였다. 또한 독자투고나 현상문예를 내거는 등의 독자중심주의 편집 노선이 어느 때보다 전면화 되었던 때였다.⁶⁰⁾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예지 역시 계몽성과 예술성에 더해 적극적으로 독자의 존재를 의식해야 했다.

이처럼 변화하는 전후 출판시장의 흐름 속에서 오영수는 『현대문학』의 편집을 소수의 발간 주체의 문학 이념이나 미적 취향을 전달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아닌, 독자와 소통하고 교섭하는 과정으로 재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오영수에게 독자는 편집의 원천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언급했듯, 오영수는 『현대문학』 이전에는 잡지를 편집했던 경험이 없다. 그런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현대문학』의 편집위원들 중에서 오영수야말로 독자의 입장에 있었던 시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는 『현대문학』 편집부로 편지를 보내온 많은 지역 독자처럼 언양에서 『문장』이나 『인문평론』을 문학청년들과 돌려 읽으며 문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⁶¹⁾ 신문의 독자 문예란에 습작을 투고하며 문학의 꿈을 키워 나갔던 존재이기도 했다. 즉, 문예지 독자들의 간절한 소통 욕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편집자였던 것이다.

실제로 오영수의 편집후기에는 유독 지역 독자들에게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시골 벽지 독자들의 잡지 구독 문제에 신경을 쓴다거나,⁶²⁾ 구독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지방책사에 경고를 가한다거나,⁶³⁾ 각지에서 결성된 문

59) 조은정, 앞의 글, 50쪽.

60)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신춘문예와 추천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371~374쪽.

61) 오영수, 「고향에 있을 무렵」, 『오영수 문학전집』 7, 동림출판사, 247쪽.

62) 「시골 벽지의 독자들에게도 구독이 다소 용이해졌으면 다행이겠다」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57, 현대문학사, 1959.9.

학 서클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⁶⁴⁾ 등은 그의 편집후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1959년 2월 개최되었던 50호 기념 전국 문예 강연을 위시해 『현대문학』이 주최해온 지속적인 지역 문학강연 행사 기획으로도 이어졌다고 보인다.

김학원에 따르면, 오늘날 편집자의 역할은 단순히 양서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책이 독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단계들에 개입하고, 독자의 의견을 책의 개발과 편집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책을 매개로 독자-소비자와 긴밀한 지식문화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편집자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다.⁶⁵⁾ 『현대문학』을 통해 오영수가 시도했던 편집은 바로 그와 같은 독자와의 소통 및 관계 창출 면에서 의미 있는 성취로 평가해볼 수 있다.

5. 맺음말

『현대문학』 1966년 3월호의 편집후기에는 오영수가 장기 병환으로 인해 당분간 편집장 직을 떠나지만, 편집위원의 일원으로서 계속 참여할 것이라는 공지가 실렸다. 이후로 그는 『현대문학』에 꾸준히 소설을 발표하였고 신인추천에도 관여하였지만, 편집장 자리에 복귀하지는 않았다. 편집장에서 물러난 일에 관한 심경은 유고로 발표된 「속 낙향산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따름이다. 1977년 3월 서울을 떠나 울주로 낙향한 뒤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에서 그는 지난 서울 생활에 대한 깊은 환멸과 함께, 조연현과의 갈등을 암시하였다.

자세한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를 미루어 오영수가 『현대문학』에서

63) “지방책사에서 간혹 본지의 절본을 400환을 받은 서점이 있다는 바 이는 본사로서 허용할 수 없는 일임으로 앞으로 이러한 위반이 있을 때는 거래를 중단하겠다.”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39, 현대문학사, 1958.3.

64) “한국문학을 위한 좋은 현상이겠다. 본사 보관지 중 필요한 통권번호를 알리면 큰 부담이 안되는 한 도와드리겠다.” 오, 「편집후기」, 『현대문학』 48, 현대문학사, 1958.12.

65) 김학원, 앞의 책, 235~239쪽.

보낸 시간들은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조연현과 오영수 사이에서 상반되었던 문예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나, 편집 방침 등의 문제 역시 둘의 갈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주로 참조하는 조연현의 『현대문학』에 관한 회고에서는 오영수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 오영수 사후에 발표된 주변의 회고들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성과와 과오를 논하기보다 개인적인 인상비평에 치우친 글들이 많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도 오영수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문학』의 편집장으로서 전개해온 활동의 실체를 제대로 조명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이 논문은 『현대문학』의 편집후기를 중심으로, 편집자 오영수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작가와 작품 위주의 문학 연구에서 지워진 편집자의 역할, 그리고 주간 조연현과 문협 정통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현대문학』 연구사에서 지워진 편집자 오영수의 역할을 이중으로 복원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먼저, 『현대문학』의 창간 과정에서 오영수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문학』을 창간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장 김기오가 과거 언양 시절부터 오영수의 삶과 문학에 끼친 폭넓은 영향을 조명하는 한편, 그와 같은 오랜 교류의 산물로서 『현대문학』의 창간 전사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해방기의 『문예』와 『현대문학』을 단선적으로 연결 지으며 문협 정통파의 매체로서 논의해왔던 기존의 접근법 대신, 언양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열망과 문화 운동의 명맥이라는 좀 더 장기적인 문화사 속에서 이 잡지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현대문학』의 편집장으로서 오영수가 담당했던 편집과 제작의 기술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잡지의 체제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 원고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일이 문학작품과 장르, 그리고 작가와 독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영수가 『현대문학』에서 시도한 다양한 편집상의 기술과 변화를 부각하였다. 나아가 이를 그동안 오영수의 작가론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그의 미술적 재능 및 시각디자인, 장정 부문에서의 활동들과 결부지어 논했다. 그럼으로써 작가로서의 문학적 지식에 더해, 상업과 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의

미적 감각이 『현대문학』의 편집과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을 의미 부여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문학』을 매개로 오영수가 시도하였던 독자와의 소통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를 1950년대의 변화하는 문예지 출판시장의 흐름 속에서 『현대문학』의 독자층을 관리하고 확대하고자 했던 마케팅의 일종으로서 논의하였다. 또한 독자의 의견을 잡지 편집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편집의 원천으로 삼았던 실례들을 부각함으로써, 『현대문학』의 편집을 소수의 발간 주체의 문학 이념이나 미적 취향을 전달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아닌, 독자와 소통하고 교섭하는 과정으로 재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려 했던 면모를 부각하였다.

상기한 편집자로서의 오영수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간 소설과 시 창작 활동에 편중되어왔던 오영수 작가론의 공백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현대문학』을 통해 오영수가 추천한 신인들의 계보라든지, 『현대문학』에 실린 소설들에 대한 분석 등 오영수 문학과 작가 연구에는 구명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

한편, 이는 『현대문학』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다. 『현대문학』은 오늘날까지 발행되어오는 오랜 역사나, 1950~60년대 문학장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비해 아직 연구가 소략한 편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시론적으로 언급하였던, 『현대문학』이 일찍부터 추진해왔던 전국 문학 강연 행사 등을 포함해 지역 작가 및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편집 방침은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주제이다. 그에 관한 논의는 후속하는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 오영수, 「도토리밥」, 『조선일보』, 1930.1.22.
_____, 「종놈」, 『조선일보』, 1930.3.5.
_____, 「추도 김기오 선생」, 『현대문학』 6, 현대문학사, 1955.6.
_____, 「인간 김기오」, 『사우』 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우회, 1962.11.
_____, 「요람기」, 『현대문학』 154, 현대문학사, 1967.10.
_____, 「고향에 있을 무렵」, 『오영수대표작선집』 7, 동림출판사, 1974.
_____, 「낙향산고」(유고), 『현대문학』 425, 현대문학사, 1990.5.
_____, 「속 낙향산고」(유고), 『현대문학』 426~427, 현대문학사, 1990.6~7.
오영수, 이광복, 「나의 인생 나의 문학: 난계 오영수」(대담), 『월간문학』, 1967.7.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김병익, 「문단 데뷰」, 『동아일보』 1971.7.24.
김윤식, 「오영수 문학에 대하여: 문협 정통파와 그 주변의 사상」, 『현대문학』 426, 현대문학사, 1990.6.
김환기 외, 「표지화가의 변」, 『현대문학』 100, 현대문학사, 1963.4.
백 철, 「저널리즘과 문화성: 월간지의 편집경향에 대하여」, 『현대문학』 1, 현대문학사, 1955.1.
오탈진, 「한국문단 지켜온 순수문예지」, 『조선일보』, 1984.12.25.
유경환, 「'친정'집 같은 향수」, 『현대문학』 522, 현대문학사, 1998.6.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현대문학사, 1968.
한국문인협회 편,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66.

2. 논저

- 김시민, 「오영수 동시에 대하여」, 『문학울산』 23, 시사랑 울산사랑, 2017.
김용 외, 『울산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을 밝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기록집』, 울산광역시교육청, 2020.
김종욱, 「오영수와 아나키즘」, 『구보학보』 10, 구보학회, 2014.

- 김진희, 「한국 현대문학과 김환기 예술의 상호 관련성 연구」, 『한국문학연구』 6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0.
- 김학원, 『편집자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2009.
- 김한식, 「동인에서 문단으로: 『현대문학』과 조연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61, 겨레어문학회, 2018.
- 나보령, 「회우와 재편: 피난수도 부산 문학장의 조감도」, 『구보학보』 27, 구보학회, 2021.
-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문 영, 「우석과 난계 오영수」, 『울주문화』 13, 울주문화원, 2014.
- 박진영, 「편집자의 탄생과 세계문학이라는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51,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 박태일, 「오영수의 광복기 미발굴 시 연구」, 『가라문학』 26,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14.
- 야나가와 요스케, 「창작과 편집: 이문구의 편집자 시절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9, 상허학회, 2017.
- 윤정규, 「오영수선생과의 만남」, 『울산문학』 19, 울산문인협회, 1992.
- 이병길, 「연양, 울산 소년들 문학운동을 하다: 일제 식민시대 연양·울산지역 소년운동사(19)」, 『울산저널』, 2022.12.28.
- 이봉범, 「1950년대 등단제도 연구: 신춘문예와 추천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 이순옥,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
- _____, 「광복기 시인 염주용의 매체 활동과 『문예신문』」, 『석당논총』 5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2.
- _____, 「광복기 부산지역 문학사회와 오영수」, 『작가 오영수가 들려주는 귀거래사』, 오영수문학관, 2015.
- 이재근, 「오영수 소설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임영봉, 「전후 한국문단의 재건과 권위의 창출 방식: 『현대문학』의 기원과 담론실천 양상에 대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오늘의 문예비평, 2005.
- 정형남, 「향토에 묻은 오영수의 문학과 생애」, 『울산문학』 19, 울산문인협회, 1992.

조은정, 「1950년대 문학장의 재형성과 『현대문학』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형구, 「편집자-비평가로서 조연현의 생애와 문예지 현대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9, 한국현대문학회, 2001.

<Abstract>

Editor O Young-Soo
- Focused on His Experience as an Editor
at *Hyundaemunhak* (*The Modern Literature*) -

Na, Bo-Ryeong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construct O Young-Soo's role as editor of *Hyundaemunhak* (*The Modern Literature*). In this process, this paper first discussed the history of the founding of *Hyundaemunhak*,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Ki-Oh, president of Daehan Textbooks, and O Young-Soo. Thus, instead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linking *Hyundaemunhak* to *Munye* (*The Literary Arts*), this study offers a new way of approaching it in the context of a longer cultural history of the cultural aspirations and cultural movements of the youth of the Eonyang region.

Second, this paper focuses on the technical aspects of editing and production that O was responsible for in *Hyundaemunhak*. This paper discusses the task of editing and producing a manuscript, taking into account the format and visual impact of a magazine, as a task that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literature, genres, writers and readers. It was also significant as an area where O's artistic talent and experience in visual design and book design could be utilized.

Third, this paper focused on O's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readers through *Hyundaemunhak*. This paper discusses these attempts as a form of marketing that sought to manage and expand the readership of *Hyundaemunhak* in the changing marketplace of literary magazine publishing in the 1950s. In addition, this paper reevaluates O's attempts to rethink the editorial process of a magazine as a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with readers, rather than a process of transmitting and reinforcing the literary ideology or aesthetic taste of a

few editors, as a significant achievement.

* Key Words: O Young-Soo, *Hyundaemunhak*, Cho Yeon-Hyun, Kim Ki-Oh,
Eonyang

· 논문투고일: 2023년 6월 18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10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14일